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7월 중 실시

7월11~14일 실시단 방문

학술 가치·공원 운영 전반 평가

29일~6월1일 추진방향 토론

국립공원 무등산 일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결정지를 실사가 오는 7월로 확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여부를 결정할 현장 실사가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실사단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IGGP) 관계자인 안드레아 슈엘레(독일), 리나 사(중국) 2명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 실사 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여부가 사실상 결판난다.

현장실사는 무등산권의 학술적 가치, 지질교육, 지역 주민의 지질공원 참여도, 지질관광,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 지질공원의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광주시는 실사에 앞서 세계지질공원 해외 전문위원 마르코 코막과 국내 전문위원 이수재 박사 등 12명이 참여하는 국제워크숍을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방향을 토론한다.

워크숍의 개최 결과는 현장실사 자료로 활용된다.

유네스코는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쯤에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한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여부를 결정할 현장실사가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위원 등이 지난해 3월 광주 무등산 입석대와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 운영 추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IGGP) 예비실사 등을 마쳤으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면적은 광주와 담양, 화순 일부 등으로 총 1051.36

ha다. 지질명소는 무등산 서석대, 서유리 공동화석지 등 20곳, 역사문화명소로 아시아 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곳이 있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지정된 제주도 가 있고 청송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33개국 120곳에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0년 철도 경력...“2호선 착공에 최선”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수익극대화와 업무효율화에 초점을 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겠다”고 경영혁신도 강조했다.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도시철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임 광주도시철도공사 제6대 사령탑으로 김성호(63·사진) 사장이 임용됐다.

김 사장은 이날 임용장을 받은 뒤 곧바로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 등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며 안전도시철도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은 우리 공사의 생명력이다”면서 “앞으로 모든 시스템을 이용시민의 눈높이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장비 개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오랜 현장 생활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공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사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적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

하겠다”며 “수익극대화과 업무효율화에 초점을 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겠다”고 경영혁신도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 착공되는 2호선 건설에 대비, 1호선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면서 “2호선의 안전확보와 건설비용 절감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수익사업 발굴과 연구개발 강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김 사장은 지난 74년 철도청 입사 이후 철도청 10년, 서울메트로 11년, 서울도시철도 19년 등 40년 철도 경력을 쌓아온 도시철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전산개혁, 기획경영, 고객서비스, 안전 등 철도운영기관 업무 전반을 두루 거처온 경험을 토대로 광주도시철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적임자로 결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복지공동체 어떻게 키울까 광주복지재단은 25일 광주시와 함께 광주·5·18교육관에서 복지허브화과 복지공동체 연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광주시 환경사고 매뉴얼로 피해 줄였다

세방산업 사태 대책위 구성

발암물질 배출 99% 저감

풍영정전 유출 발빠른 대처

광주시의 환경사고에 대한 현장중심 협업방식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신속한 현장접근, 상황 판단, 관련 기관·단체로의 전파 및 공유, 협업체계 구축, 인력과 장비 투입 등 실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장현 시장의 지시로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이런 매뉴얼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7월 하남산단 내 세방산업의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배출 사실

이 알려진 직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분포도 공개, 분석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들로 TCE 배출 대책 검증위원회와 TF를 구성해 업체의 시설개선과 제도개선을 이끌었다.

세방산업 TCE 배출 문제 발생 시부터 곧바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시켰다.

또한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해 가면서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선제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대응했다.

이같은 적극 대응에 힘입어 세방산업 굴뚝에서 배출되는 TCE 농도는 1차 검

증 시 평균 73ppm에서 최근 개선 후 2차 조사에서는 0.39ppm으로 측정됐다. 수치를 무려 99.5%를 저감한 것이다.

또 지난달 17일 이후 광산구 하남3교 아래 풍영정전에 계면활성제(거품발생), 페인트, 기름띠가 형성됐을 때도 이런 매뉴얼을 활용해 최소화했다.

당시 시는 즉각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고를 전파하고 서구, 북구, 광산구와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작동시켜 합동으로 유류 수거작업을 벌였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권지역본부와 총청권, 호남권 등에서 유화수장지 6대를 지원받아 투입했으며 결국 기름이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26~27일

‘새 김치 담그는 날’ 행사

광주시는 26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치타운에서 광주 세계김치축제의 첫 번째 마당인 ‘봄&여름 우리집 새 김치 담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개막행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광주김치 소비촉진 선포식, 나눔김치 버무리기 및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향우회, 혁신도시 임직원, 김치명인, 광주김치 서포터즈 등도 참석한다.

행사장에서는 배추·열무열매같이 김치체험(5000원/kg), 토마토·오이송송이 김치 체험(3000원/0.5kg), 꽃·채소모종 심기, 김치·오리요리 시식, 딸기·감자수확체험, 김치과학교실, 반려동물산책, 물총놀이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김치업체에서는 배추김치, 갓김치 등 계절 김치도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나눔행사를 함께 열어 연중행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집 가꾸기 ‘꿀팁’ 한곳에

28일까지 ‘홈·라이프스타일 쇼’

‘고급스러운 집 가꾸기’ 최신 트렌드를 제시하는 프리미엄 리빙 전문 전시회가 광주에서 개최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센터 전시장 2·3홀에서 ‘먹고, 놀고 사랑하는 공간으로서의 집(Eat, Play, and Love at home)’이라는 주제로 ‘홈 앤 라이프스타일 쇼(Home & Lifestyle Sho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대표 리빙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는 홈리빙·데코, 주방용품, 디자인제품, 가드닝, 인테리어 제품 등 국내외의 150여개의 유명 브랜드가 참여해 리빙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북유럽 대표 가구 브랜드인 프리

츠한센(Fritz Hansen)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리빙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국내 대표 인테리어 내장재 기업인 ㈜영림은 영림 키친, 바스, 홈엔리빙 등 신사업군 출시를 기념하여 전시관을 기획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집’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 ‘소통하는 집’, ‘인생은 낭만’, ‘Upcycling and Greenery’ 등 이야기가 있는 트렌드 콘셉트를 선보인다.

특히 집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리빙 전문 전시회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리빙분야의 신제품과 최신 리빙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 소통, 카페 등 집에 관한 다양한 재해석을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p>장성 서산면 승현리 (공장)</p> <p>대지 1361평 건물 372평</p> <p>최저가 657,000,000 감정가 938,000,000</p>	<p>동구 대인동 근린주택 (4층건물)</p> <p>토지 128평 건물 250평</p> <p>최저가 885,000,000 최고가 885,000,000</p>	<p>나주 문평면 옥당리, 둔사</p> <p>토지 1417평 건물 484평</p> <p>최저가 224,000,000 최고가 321,000,000</p>	<p>화순 도곡면 천암리 (숙박시설)</p> <p>대지 978평 건물 1294평</p> <p>최저가 993,000,000 최고가 3,788,000,000</p>
<p>서구 화정동 원릉(화정역인근)</p> <p>토지 94평 대지 157평</p> <p>최저가 549,000,000 감정가 784,000,000</p>	<p>남구 서동 근린주택</p> <p>토지 79평 건물 115평</p> <p>최저가 553,000,000 감정가 553,000,000</p>	<p>운영동 기전빌라</p> <p>22평형 6가구 (수익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탁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p>	<p>제일오피스텔 29층</p> <p>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p>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